

(2021.11.29. 월) 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한겨레)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이 23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것이 우리의 정서이자 관습이지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내란 수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애도의 감정도 가질 수 없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압살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했다.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무자비한 폭압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해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다.

또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정경유착을 일삼았다.

그는 생전에 여러 차례 참회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뻔뻔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단 한번 미안한 기색조차 보인 적이 없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내란과 5·18 책임자로 법정에 섰을 때도 '광주 항쟁'을 '좌파 세력의 준동'이라고,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선 "폭동"이라 강변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故: 죽은사람)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노태우씨와도 비교된다.

그래도 노씨는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족을 통해서나마 사과를 했다.

전두환은 노태우씨와 달리 추징금도 25년째 내지 않았다.

검찰이 1249억원을 강제 집행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956억원에 이른다.

전두환의 가족들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염치없게도 소송 전을 벌이고 있다.

부인 이순자씨는 2017년 자서전에서 전두환의 5·18 책임에 대해 "정략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2019년 재판 출석을 앞두고는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궤변을 늘어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전두환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떠났다.

국가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거나 애도를 표명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문과 조화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국민 학살자’에게 어울리는 논평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정작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두환으로부터 한마디 사죄도 받지 못한 5·18 영령들과 유족들이다.

최근 일부에서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1987년 시민항쟁 이후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 여론과 강성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겁한 침묵이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자신의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수 정당의 참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수구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태우씨와 전두환의 연이은 사망으로 군사독재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온전히 넘어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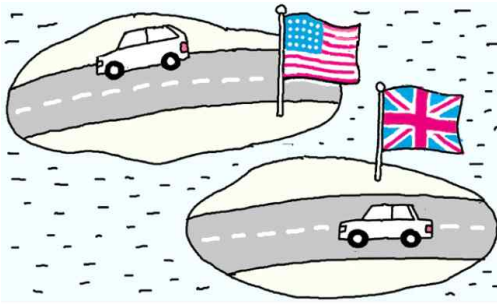
그러나 5월 광주의 진상 규명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1980년 5월20일 밤 10시30분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발포,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첫 집단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밝히고, 생사도 확인되지 못한 행방불명자 신원을 찾아내고,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수습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5·18 영령들 앞에, 박종철·이한열 열사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의 법정엔 공소시효(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공소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는 없다.

(2021.11.30.화) 미국과 영국 차량 통행, 오른쪽과 왼쪽 반대인 이유(조선일보)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선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는데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왜 좌측통행을 하는 걸까.

우리에게겐 기이하게 보이지만 세계 인구의 약 35%는 차량 좌측통행 국가에서 살고 있다.

원래 지구상 대부분 지역에선 좌측통행을 했었다.

과거 운송수단이 오늘날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말을 탄 중세시대 기사들은 오른팔을 적에 더 가까운 쪽에 두기 위해 길 왼쪽으로 말을 몰았다.

말을 타고 내리는데도 말의 왼편이 편한데다가, 길 오른쪽으로 다니면 말의 왼쪽으로 내릴 경우 길 가운데가 되는 탓이었다.

우측통행으로 바뀌게 된 건 1700년대 후반이었다.

농산물 운반을 위해 여러 쌍의 말이 끄는 대형 마차가 등장하면서 마차꾼이 오른팔로 채찍을 휘두르기 편하게 뒤쪽 왼편 말에 타게 됐다.

그렇게 마차 왼편에 앉다 보니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마차가 자신의 왼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가능하기 쉬워 우측통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끝까지 통행 방향 변경을 거부하고 1773년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규칙을 도입했고, 1835년엔 공식 법제화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대혁명 후 아이러니컬하게도 왼손잡이 지배자인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우측통행을 영구 조치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통행 방향이 좌우로 분열된 와중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에 세력을 떨치며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 그 영향으로 영국이 점령한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은 좌측, 프랑스 식민지가 된 알제리·코트디부아르·세네갈 등은 우측통행을 따르게 됐다.

세계적으로 우측통행이 대세가 된 건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운전석이 왼쪽에 위치해 승객들이 오른쪽으로 내리게 되면서 차량 통행이 우측으로 굳어졌고, 그때까지 '좌파'였던 많은 국가가 '우파'로 전향하게 됐다.

가장 늦게 노선을 바꾼 나라는 1967년 스웨덴이었다.

그럼 일본은 왜 좌측통행을 하게 된 걸까.

메이지유신 시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입헌군주국인 영국을 모델로 삼았는데, 도로 건설 기술과 함께 좌측통행도 받아들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원래 우측통행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좌측으로 변경됐다 가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이 시행되면서 차량은 우측으로 바뀌고, 보행자는 좌측으로 남았다.

이후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200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통행도 우측으로 정착됐다.

(2021.12.1.수) 나를 만족시킬 '천 개의 이야기' (동아일보)

주변에는 늘 예외 없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

학생 때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더 잘하고,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이런 자매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직장에서는 나보다 더 성과가 좋고, 상사나 고객에게 더 인정받으며, 더 빨리 승진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동료나 후배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에는 더 성공하고, 더 넓은 집에 살며, 멋진 건물을 갖고 있거나, 더 비싼 차를 몰고, 더 좋은 옷을 걸친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사는 동안 내 주변에는 항상 나보다 어떤 면에서든 더 '잘 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 발전을 위한 자극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똑같은 욕구가 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패나 자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년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오기를 기대한 사람은 그 정도 수익률을 얻고 나면 주변에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올린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가진 수익에 대한 만족을 접고 다시 욕망을 키운다.

이러한 게임에 빠져들게 되면 때로 빗을 내어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결국 완전히 잃어야 그 게임을 그치게 된다.

'돈의 심리학' 저자이자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였던 모건 하우절은 투자의 기술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충분한지" 를 아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에 따르면 만족을 모르는 것은 투자에서 매우 위험하며, 그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

내 주변에는 어느 시점에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원하던 성취를 이루어도 기쁨은 잠시이며, 또다시 더 잘나가는 사람을 쫓아가고,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은 잠시, 불만족은 오래간다.

물론 이런 흐름 속에서 사는 것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살고 싶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의 저자인 고려대 심리학부 허지원 교수의 최근 강연에서 힌트를 얻는다.

허 교수는 자기의 삶에서 “천 개의 이야기”를 발견해 보라고 조언했다.

자기 삶의 이야기가 오로지 직장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동기보다 빠른 승진으로 좁혀져 있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천 개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한두 가지가 무너지더라도 900개가 넘는 이야기가 “기동”이 되어 받쳐주며, 힘을 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내 삶에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일, 친구, 가족, 음식, 음료, 만들기, 관람하기, 음악, 책, 그림, 글쓰기, 여행지, 물건, 잠, 휴식 등 수많은 영역에서 찾아낼 수 있다.

처음에는 ‘100개라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야기와 특정한 누군가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야기 등 서로 다른 조합으로 적다 보면 의외로 내 안에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지탱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허 교수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면 주변에서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삶과 일에서 나만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삶에 존재하는 “천 개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주말이나 퇴근 후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고생해 온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 보면 어떨까?

‘잘난 사람’은 내 주변에 항상 있다.

하지만 내 안에도 ‘잘난 사람’이 늘 있다.

질문 1 : 허 교수가 자기의 삶에서 “천 개의 이야기”를 발견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답 :

(2021.12.2.목) 취약계층 등쳐 온 소액결제 업체들, 정부는 뭐했나(서울신문)



○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 식빵 구매시,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를 받게 됨

○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됨

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체료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등친 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업체 4곳에 1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두 곳은 검찰에 고발도 했다.

4개 업체는 국내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업체들이다.

최근 9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하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정부 권고 선인 3%보다 높은 5%로 담합했다.

소액결제는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휴대폰 요금을 기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내면 5%의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에 이른다.

한 번 연체하면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배라는 '연체료 폭탄' 을 맞는 셈이다.

차제에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담합을 근절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기간에 일어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번엔 관련 매출액 3753억원의 5%선이고,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의 경우 3%선이었다.

이 정도 과징금 부과로는 자유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담합으로 한 번 적발되면 회사가 사업을 접을 정도로 강하게 징벌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된 배상 책임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도록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도 필요하다.

과징금은 국가재정으로 환수된다.

9년 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피해자 신고가 있어서였다.

소비자보호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질문 2 : 소액결제를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초년생 :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

답 :

질문 3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계기는?

답 :

(2021.12.3.금) 고객님들의 놀이터(한국일보)

“뭐 저렇게 사악한 어른이 다 있어?” 며칠 밤을 뒤척였다.

놀이터를 습격한 입주민 대표, 그를 향한 한탄이 가시질 않았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그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중 단지 밖에 사는 어린이만 골라 관리실에 가뒀다고 한다.

기물파손이라며 경찰도 불렀다.

아이들에게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것” 이라고 떠들었다.

그를 원망하며 며칠이고 길을 걷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울었다.

그러다 문득 아픈 자각이 스쳤다.

이 놀이터 빌런(villain : 악당)은 과연 아주 특별히 사악한 돌연변이였을까.

정도만 다를 뿐 아이들과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은 놀이터 빌런의 세계관과 닮아 있다.

이 세계의 도시는 아파트 단지인 곳과 아닌 곳, 즉 안과 밖으로 양분된다.

말썽한 커뮤니티 및 편의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는 대체로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시민을 위한 공قل이나 공원은 없어도 입주자를 위한 팰리스, 캐슬, 파크는 있는 세상이다.

안전과 녹지와 편의는 시민 모두가 아닌 울타리 안의 입주자, 소비자, 고객님들에게 더 각별하게 제공된다.

혹은 그렇다고 상당수가 믿는다.

이곳에서 시민은 자연스레 이웃 삼아야 할 너와 내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한 자와 아닌 자로 나뉜다.

지불할 돈이 어디 좀 비싼가.

그 큰돈을 마련하기란 또 좀 힘든가.

아파트 단지 밖 시민을 무임승차자로 여기는 것, 즉 나만큼은 푸르르고 안전해도 좋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고회로는 흔해진다.

‘모질지만 이해도 되는’ 범주로 통한다.

아이들을 골라내고 가두고 폭언을 퍼붓는 광기가 들통나기 직전까지는.

과연 낯선 풍경일까.

엘리베이터에 ‘배달기사 이용금지’ 를 써 붙인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반대한다.

신축 아파트 지상 공간을 택배차량이 가로지르는 건 큰일 날 소리다.

인근에 장애학교나 청년주택 건립은 단연 결사반대다.

주민 인식표를 받은 아이만 놀이터를 쓸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는다.

모진 심성과 민족 근성을 자학한다고 해결될 일일까.

담장 안쪽만이 안전하다고 온 세계가 외쳐대는데.

자칭 좌파조차 2주택 보유가 기본이고 개천 탈출에 물불 안 가리는데.

담장 겸연쩍은 표정으로 남의 단지 안을 들여다볼 일이 없는 이들로 당정청(더불어민주당의 '당', 정부의 '정', 청와대의 '청' 을 줄여서 당정청)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씨 착하게 씹시다!' 를 외쳐 해결될 일이 아닌 걸 다들 아는데.

생존에 대한 욕망, 안전에 대한 강박에 지나치게 솔직한 일상의 빌런이 넘친다.

'한국인만 유일하게 가족 대신 물질을 택했다' 는 뉴스가 곳곳을 장식 중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 서치가 17개국 1만8,000여 명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을 물었는데 한국만 '물질적 행복' 을 1위로 꼽았다는 것이다.

다른 대선 가족, 직업, 물질적 행복 순이 흔했다.

우리만 압도적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냉혈한으로 진화한 것일까.

내겐 한국에선 평범한 시민에게조차 가족이라도 지킬 필수 수단이 물질이라 여겨진단 뜻으로 읽혔다.

고객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가 "도둑놈" 소리까지 듣고야 마는 세계에서 누군들 초연할 수 있을까.

마을은 없고 단지는 있는 사회, 공공 녹지와 공원은 드물고 고품격 전용 공간은 넘치는 사회, 시민은 없고 고객님은 있는 사회.

아이들의 손을 잡고 탈출하고 싶은 곳은 비단 폭언이 쏟아지는 아파트 관리실이 아니라 이런 물질주의의 거대한 놀이터 혹은 전쟁터다.

비단 마음씨 문제가 아니다.

단 하나의 솔루션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모두가 모든 걸 다해야 이룰까말까 한 대탈출이다.

₩보너스 읽기₩ 어떤 죽음(동아일보)



브리튼 리비에르 '망자를 위한 기도', 1888년.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있을까.

이유와 시기가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고 모든 죽음에 애도(남의 죽음, 고통, 불운을 슬퍼하는 동정심의 표현)가 따르는 건 아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가 그린 이 그림 속엔 죽은 자만 있고 애도하는 자는 없다.

개 한 마리만 있을 뿐이다.

왜일까?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했던 리비에르는 17세 때부터 런던 왕립미술원에서 전시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그는 신화나 역사 그림에도 능했지만 동물 화가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사람 같은 표정을 가진 개 그림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48세 때 그린 이 그림 속엔 중세 갑옷을 입은 남자가 푸른 천이 깔린 침대에 누워있다.

가슴 위에 화환이 놓인 걸로 보아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침대 앞을 지키는 개는 애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 개는 블러드하운드로 유럽 왕실과 수도원에서 많이 기르던 귀족적 혈통의 사냥개다.

제목인 '레퀴에스카트(Requiescat)'는 '안식'을 뜻하는 라틴어로,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는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일한 상주(유족의 대표이며, 장례 관련 책임자)인 것이다.

이 그림은 완성된 바로 그 해 왕립 미술원에 전시돼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기사도 정신과 총견의 헌신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인기를 증명하듯, 이듬해에 화가는 이 그림의 복제화를 두 점이나 더 그렸다.

기사도는 중세 유럽에서 성립된 이상적인 행동 규범이다.

기사가 지켜야 할 주요 덕목은 용맹, 충실, 명예, 관용, 예의, 약자 보호 등이었다.

한데 중세 봉건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였을 리가 없다.

무기와 갑옷 등을 독점한 기사들은 오히려 기사도에 정면 배치되는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기 일쑤였다.

그림 속의 기사도 그리 기사답지는 못했던 듯하다.

가족, 동료, 이웃 등 아무도 애도하는 이가 없으니 말이다.

다만 총견만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을 뿐.

질문 4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기사도'의 뜻은?

답 :

질문 5 : 글쓴이는 그림을 보고 기사가 그리 기사답지 못했다고 느낀 이유를 뒷받침하는 문장을 써보세요.

답 :